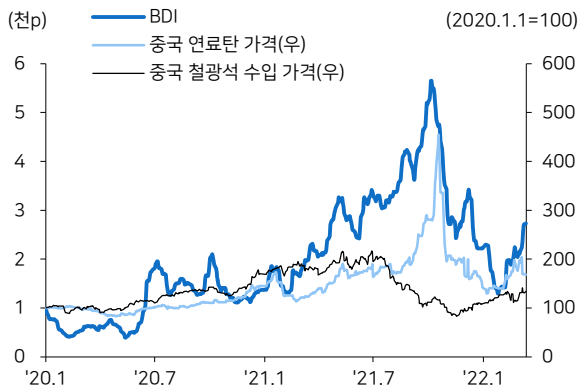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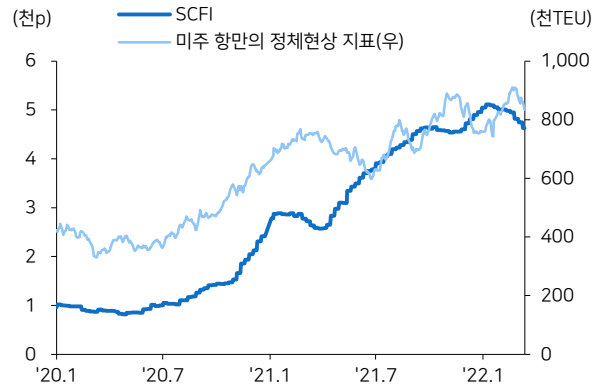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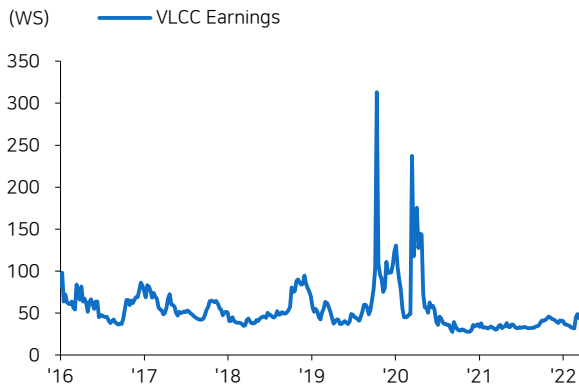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27.0p(+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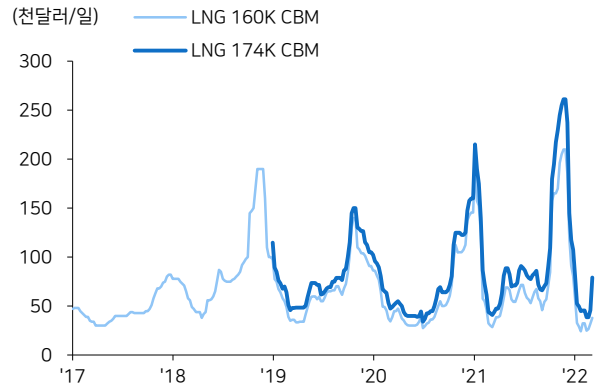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625.1(-121.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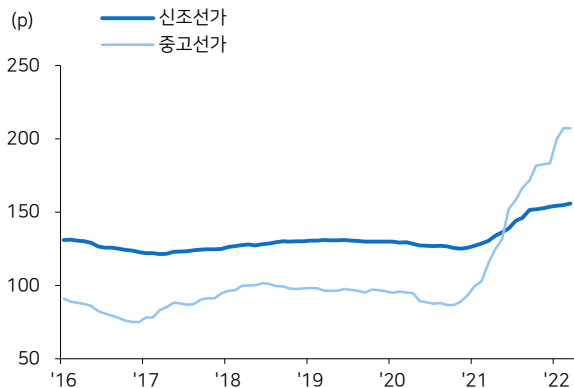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3.9(-4.9p WoW)



LNG Spot 운임 38.0p(+6.0p WoW) 79.3p(+33.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5.8p(+1.4p WoW) 207.6p(+0.4p WoW)



항공시장 지표 285.8p(+0.5p WoW) 91.5p(+0.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11년 만의 현금 배당...총 3,000억원 규모

HMM이 총 3,000억원 규모, 보통주 1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보도됨. 2011년 이후 11년만의 첫 배당임.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방침임. (이데일리)

아시아나항공, 내달 1일 인천~다나고야 노선 11개월만에 운항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2020년 4월 중단됐던 인천-나고야 노선의 운항을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보도됨. 주 1회 운항될 예정임. 3월 27일부터 인천-나리타(도쿄),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도 증편될 예정임. (연합뉴스)

인천공항, 항공 물동량 세계 2위 도약...팬데믹 이후 급성장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발표한 화물실적 분석자료에서 2021년 327.3만톤을 처리해 전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COVID-19 확산 영향으로 2021년 물동량이 2020년대비 18.6% 증가했다고 보도됨. (에어진)

프랑스 CMA CGM, 지난해 영업이익 24조...6배 '굉충'

프랑스 선사 CMA CGM이 운임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452% 급증한 약 196.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2021년 컨테이너 수송량은 5% 증가한 2,204만TEU를 기록함. 한편, 스팟운임 인상 정지 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코리아쉬핑가제트)

핸디막스시황 급등...4개월만에 용선료 3만弗 돌파

석탄과 곡물 등을 운반하는 58,000톤급 핸디막스 벌크선 시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일일 용선료가 4개월만에 3만달러를 돌파함. 현재 용선료는 58,000톤급 선형 평균 손익분기점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임. 유럽의 석탄 수요처가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면서 태평양 해역 수요가 늘어나고 항해 거리가 길어짐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또, 유럽에서 아시아산 철강화물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됨. (코리아쉬핑가제트)

LRs to rise at MR tankers' expense as high prices threaten market recovery, BRS says

브로커 BRS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MR탱커 대신 LR탱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됨. MR탱커 물동량 중 6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원유가 사라지고, 지중해·미국 걸프만·북서 유럽·캐리비안·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으로 옮겨가고 있음. 또한, 미국의 타이탄 석유화학제품 시장 수급 및 중국의 자국 수출 제한은 인도 및 중동 운송수요를 야기해 더 큰 LR탱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